



한동훈 작 설상호 작 이선복 작 이창훈 작 한동훈 작

시원함이 푹푹... 보는 것만으로도 피서

광주시립미술관 기획전

8월 20일까지 부채그림전

예술가 22명 40점 전시

내일 선착순 150명

시민 부채 만들기 행사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쏟아지는 무더위에 '부채'는 더 없이 좋은 친구다. 시중에서 파는 기성품도 좋지만 세상에 하나 뿐인 '부채'를 갖는 것도 의미있다. 한여름, 시원한 부채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작가들과 함께 '나만의 부채'를 만들어 보는 시간도 있으니 일석이조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여름맞이 기획전 '부채그림전'을 오는 8월20일까지 본관 1층 아트라운지에서 연다.

전시장에서 만난 부채그림들은 다채롭다. 푸른색 물이 푹푹 떨어질 것 같은 새파란색이 인상적인 작품도 있고, 시원한 녹색의 심원 속으로 끌어들이는 부채도 있다. 아름다운 누군가의 얼굴도 보이고, 간단한 문자 추상으로 멋을 부린 부채도 있다.

이번 전시에는 원로서예가, 전업작가, 청년작가, 실용예술가, 미술전공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22명의

작품 40점이 출품됐다. 장르도 서예,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공예 등 다양해 개성있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참여작가는 김미경, 김미지, 김연호, 김효정, 설상호, 양홍길, 염순영, 오경민, 윤세영, 윤준영, 이선복, 이정운, 이창훈, 이해영, 임근재, 전현정, 한동훈, 황순철, 담현 전명옥, 비석 박익정, 질 그릇 이흥홍, 학정 이돈홍씨 등이다.

26일 오후 4시~6시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부채 그리기' 행사가 열린다. 설상호·이선복·이정운 작가를 비롯해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이 함께 시민들과 작품을 만든다. 선착순 150명 한정으로 1인당 1점씩 제작할 수 있다. 모든 재료는 미술관에서 준비한다.

이날 그린 시민 작품 중 일부는 현재 아트라운지에 걸려 있는 작가들 부채 그림과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문의 062-613-71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명옥 작 염순영 작 김미지 작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 3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김원중의 달거리 '2017 빵 만드는 공연'이 오는 31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의 주제는 '여성·여인·여자'이며 강위원의 사회로 진행된다.

'김원중과 너트나무 밴드', 아카펠라 'The Present', 퓨전 국악 '루트머지', '강운숙의 재즈 트리오', 팝페라 '빅맨 싱어즈', 밴드 '프로로그', '박성언밴드', '바닥프로젝트', '우물안 개구리' 등이 무대에 오른다. 또, 주홍 작가가 참여해 샌드아트메이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달거리 초대손님은 광주오카리나합주단과 원

산지역아동센터이며 빵 만드는 갤러리는 박태후 작가가 함께한다. 지난 2003년 달거리를 시작한 김원중은 2005년 북녘어린이영양방공장사업본부와 인연을 맺으며 '빵 만드는 공연'을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 공연은 오는 12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찾아온다. 매달 아티스트와 스태프 50여 명이 하나로 뭉쳐 통일을 향한 희망을 키워간다.

북한 어린이를 돕고 싶은 시민들은 공연 후 모금함에 입장료를 내거나 후원계좌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010-3670-5802.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김원중



기타리스트 박주원 첫 광주공연

내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기타리스트 박주원의 '기타 콘서트 집시시네마'가 26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박주원이 광주에서 단독 공연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날 공연에서는 2년 전 발표한 앨범 '집시시네마' 수록곡들을 들려준다.

'리브 스토리' 주제곡과 '라라의 테마(타타 지바고)' 선율이 플라멩코의 땅고스(tangos) 리듬으로 연주되며 감미로운 '남과 여' 주제곡은 플라멩코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불레리아스(bulerias)

리듬으로 들을 수 있다. '침밀밀'에 삽입됐던 서정적 연가 '월광대표의심(月靑代表我的心)'은 화려한 롬바 곡으로, '007 제임스 본드 테마'는 폭풍처럼 질주하는 집시 스윙으로 변신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앨범에 수록된 영화 음악 외에도 '슬픔의 피에스타' '집시의 시간', '캡틴NO.7' 등 박주원의 다양한 오리지널 곡도 함께 선보인다. 또 박주원이 가장 존경하는 플라멩코 기타의 전설 '파코 데 루치아(Paco de Lucia)'의 대표곡 'Entre dos aguas'도 들려줄 예정이다. 문의 062-613-8379.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운영 교육 참가자 모집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2월 열리는 '2017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과 함께 할 운영요원(큐레이토리얼 어시스턴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가자 10명을 모집한다.

'큐레이토리얼 어시스턴트(Curatorial Assistant)'는 행사의 기획·운영 등 관리자 역할을 하는 '큐레이터'를 보조

하는 역할로 페스티벌 현장에서 행사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은 오는 8월 11일부터 26일까지다. 모집기간은 오는 8월 7일까지, 구글 페이지(goo.gl/forms/EBXIAFFic-TaGXTaG3)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무료교육, 문의 062-670-7492. /박성천기자 skypark@

'오너라' 대신 '오겨라' 써도 됩니다

국어대사전 수정 32건 발표

지금까지 '오다'의 명령형은 '오너라'였다. 종결 어미 '-거라'의 뜻풀이에 '오다를 제외한 동사 어간 뒤에 붙어'라는 단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오겨라'로도 쓸 수 있게 됐다.

국립국어원은 24일 실제 언어생활과 비교해 의미와 용법이 다른 것을 바로잡고 표제어를 추가·삭제한 2분기 표준국어대사전 수정 내용 32건을 발표했다.

이번 표준국어대사전 수정으로 인해 품물놀이를 하는 무리인 '품물패', 하나의 자음자로 이뤄진 받침인 '홀받침', 매우 짝다는 뜻의 ' 짝디 짝다'가 표준어 외래어로 인정됐다. 또 '세후'와 '강'도 언어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의미가 추가됐다.

'늦되다'에는 '어떤 일을 하는 데 평균보다 더 걸리다'는 뜻풀이가 새롭게 생겼고, '소지'는 '본래의 바탕'이라는 풀이에 '문제가 되거나 부정적인 일 따위를 생기게 하는 원인'이 추가됐다. 단어 '몽니'의 뜻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심술을 부리는 성질'에서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로 뜻풀이가 간 단해졌다.

이와 함께 국립국어원은 자주 쓰이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꾼 다듬은 말도 발표했다. 범죄·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증거를 의미하는 외래어 '스모킹 건'은 '결정적 증거'가 다듬은 말로 정해졌고, '스마트 모빌리티'와 '퍼스널 모빌리티'의 다듬은 말로는 '1인 자동차'가 뻗었다. /연합뉴스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주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호텔 수영장

신양파크호텔 여름 패키지

스탠다드룸 1박 + 조식 2인 + 사우나, 수영장 2인

₩110,000원 (세금포함)

객실예약 228-8000
광주일보 제휴 패키지 예약주시는 분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신양파크호텔과 함께하실 임대업장 사업주를 모집합니다!

▶ 임대업장 : B1 노래방 / F2 한식당
▶ 상담 및 문의 : 062) 221-4172 총무과
*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방

한식당